



2면

캐나다수도에 전북의 맛 · 멋 향연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6월 3일 금요일 (음 5월 5일) 제303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당선 첫날인 2일 군산역전 종합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같은 날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전북교육문화회관 앞뜰에 세워진 순직교육자 추모탑을 찾아 순직한 교육자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있다.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당선인도 당선 첫날, 낙수정 군경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도지사·교육감·전주시장 당선 후 '첫 행보'

▲김관영 '민생 우선 도정 펼치고, 현장 우선 도정에서 답 찾겠다'

"180만 도민들의 절박한 민심을 받들어 전북경제 살려내고 새로운 도정을 펼쳐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당선 첫 일정으로 군산역전 종합시장과 전주 모래내 시장을 방문해 민생 행보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날 김 당선자는 시장 상인들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전북도민의 먹고사는 문제해결과 민생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또, 전주시 환경미화원과의 오찬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당선자는 "우리 도민들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신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전북 도정을 펼쳐 나겠다"라며 "책상에 앉아 권력을 행사하는 도지사가 아닌 도민의 곁에서 아들처럼,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대화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도정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우선의 도정을 펼치고, 현장 우선의 도정에서 답을 찾겠다"면서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 정치로 도정 운영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지사- 김관영 당선인, 군산역전시장 찾아 민생행보 · 환경미화원과 오찬

교육감- 서거석 당선인, 순직교육자 추모 뒤 모래내시장서 당선인사 가져

전주시장- 우범기 당선인, 낙수정 군경묘지 참배 · 향후 업무추진 방향 설명

▲서거석 "전북대를 명문대로 만들었던 경험 바탕 교육도시 전북의 명성 반드시 회복"

"미래지향적인 교육현장을 만들겠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당선 첫날인 2일 전북교육문화회관 앞뜰에 세워진 순직교육자 추모탑을 찾아 순직한 교육자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한 뒤, 희망의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 당선인은 "지난 12년 전북교육 현장은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졌고, 학생들의 학력은 뒤쳐졌다"면서 "전북대 총장 시절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학을 전국적인 명문대학으로 만들었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교육도시 전북의 명성을 반드시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도록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통한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이에 앞서 서 당선인은 이날 아침 모래내시장 사거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화합하는 교육현장을 만들겠다"며 "지역과의 협치를 통해 교육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 당선인은 각 시·군 현장을 순회하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우범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현장행정·전주 대전환 위한 큰 틀 청사진 강조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당선인이 당선 첫날인 2일 낙수정 군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우 당선인은 이날 오전 9시 군경묘지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마치고 이어 오전 10시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향후 업무추진 방향 등에 대해 밝혔다.

우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현장행정, 전주대전환을 위한 큰 틀의 청사진을 강조했다.

그는 "전주는 큰 꿈을 꾸야 한다. 전주는 그동안 꿈조차 꾸지 않았다"라며 "장단기 사업 특성에 따라 원금을 조절하며 착수 가능한 사업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우 당선인은 특히, 장기 청사진과 관련해 "천안아산-세종-전주를 잇는 철도노선 신설은 교통소외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전주동부권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앙부처에 대해 전주 몫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전주는 지금 작고 소소한 사업은 의미가 없다.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도동동에 3만 평 규모의 최첨단 농업

기술센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쉬야 시작된다"는 화두를 던진 우 당선인은 "과거를 털어내야 발전할 수 있다"라며 과감한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터 개발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우범기 당선인은 또, 전주의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 조선왕조를 테마로 한 문화사업과 드론 도심항공 등 수소탄소산업 분야와 관련해 최대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연내 신청할 복안이다.

그는 이밖에도 이간경제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범기 당선인은 "전주 전체가 관광의 대상이 돼야한다"며 "잠깐 스치는 관광객이 아닌 먹고 자고 쓰는 머무는 관광 명소 전주를 위해 관광테마를 다양화하고 관광권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당선인은 끝으로 "신속한 판단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더 이상 탁상시정, 탁상행정은 없을 것"이라며 "할 일 많은 전주 곳곳을 찾아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변화·혁신 선택
도민들께 감사"

김성주 민주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이 2일 6·1 지방선거에서 전북의 변화와 혁신을 선택해주시는 전북도민들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변화를 바라는 도민의 민심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을 새롭게 공천했다"면서 "또, 시·군 의회의 변화를 주도할 청년과 여성 후보자들을 과감하게 추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들은 도민들의 뜻에 따라 제일 먼저 전북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전북의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려는 도민들의 뜻에 따라 더 겸허하게, 더 과감하게 전북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6월 6일 현충일 관계로 7일까지 신문 쉽니다.

IMSIL-GUN
임실군

섬진강 르네상스가 열립니다